

# 전 재산 보시한 공덕으로 영원한 금 받아

##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 (50)

용녀 구해준 장사꾼

부처님께서 사위성의 남쪽 대림이라는 읍에 계셨다. 장사꾼이 여덟 마리의 소를 몰고 북방 구치국에 도착했으며, 또 어느 한 장사꾼이 함께 진흙 개울 안에서 소를 치고 있었다.

그때 리차가 용녀(龍女) 하나를 잡아서 코를 뽑아 끌고 갔다. 장사꾼은 그것을 보고 이내 인자한 마음을 일으켜 리차에게 물었다.

“당신은 그를 끌고 가서 무엇을 하려 하십니까?”

“나는 죽여서 먹으려 하오.” 장사꾼이 말했다.

“죽이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소 한 마리를 줄 테니 바꾸어 가지시고 그를 놓아주십시오.”

불잡은 이가 놓아주려 하지 않으므로 점차 올라가서 여덟 마리를 다 죽겠다고 하자 그제야 말했다.

“그렇다면 놓아주려 하오.”

리차는 여덟 마리를 소를 얻은 뒤 용녀를 놓아주었다. 이때 장사꾼은 다시 생각했다.

‘이 리차는 나쁜 사람이다.’

다시 쫓아와서 불잡을까 두려워서 용녀를 따라가며 그가 향하는 곳을 살폈더니, 한 못가에 닿아서 용은 변하여 사람이 되어서는 장사꾼에게 말했다.

“장사꾼께서는 저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이제 은혜를 갚으려 하니 저와 함께 용궁으로 들어 들어가십시오. 은혜를 갚겠습니다.”

장사꾼은 대답했다.

“그대들의 용의 성품은 갑자기 사나워지고 성을 내는 것도 변덕이 심하여 어쩌면 나를 죽일 수도 있다.”

용녀가 대답했다.

“앞사람이 나를 불잡아 갔을 적에 나의 힘으로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살(布施)의 법을 받았기 때문에 죽일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하물며 장사꾼께서 이제 저의 생명을 구하셨는데 해를 끼치겠습니까?”

그러하여 장사꾼은 용녀를 따라 들어갔다.

“잠시 이 안에 서 계십시오. 제가 먼저 들어가서 정돈을 하겠습니다.”

기다려던 장사꾼은 용문 곁에 두 마리 용이 한 군데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말했다.

“너희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용녀가 대답했다.

“이 용녀는 반 달 동안에 사흘을 재법(齋法)을 받는데, 우리 형제가 이 용녀를 수호하다가 잘못하여 리차에게 불잡히게 했습니다. 그 때문에 묶여 있습니다. 장사꾼이 인자한 말을 하여 저희들을 놓아주게 하소서. 이 용녀가 만약 어떠한 음식을 잡수시겠냐고 물으면 염부제 인간들의 음식을 찾으십시오.”

용녀가 정돈을 마치고 나와 장사꾼과 함께 궁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용녀는 보배 평상에 장사꾼을 앉히고 말했다.

“장사꾼께서는 이제 무슨 음식을 드시겠습니까?”

“염부제의 인간이 먹는 음식을 먹고자 합니다.” 그러자 이내 갖가지 음식을 내리므로 용녀에게 물었다.

“이 두 용들은 무엇 때문에 묶여 있는가?”

용녀는 말했다.

“이들은 저에게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그들을 죽이려 합니다.”

장사꾼은 말했다.

“그대는 용들을 죽이지 마라.”

“반드시 그들을 죽여야 합니다.”

그러자 장사꾼이 다시 말했다.

“그대가 그들을 놓아주어야 나는 밥을 먹겠소.”

“바로 그렇게 놓아줄 순 없고 별로 여섯 달 동안 인간 세상에 내뿔었습니다.”

“누구에게 나아가서 출가해야 됩니까?”

“여래께서 지금 사위성에 계시면서 아직 해탈하지 못한 이를 해탈하게 하십니다. 여래께 가시어 출가하십시오.”

장사꾼은 돌연히 말했다.

“나는 돌아가고 싶소.”

용녀는 여덟 개의 병에 든 금을 주면서 말했다.

“이것은 용이 쓰는 금입니다. 부모와 권속들이 죽을 때까지 써도 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용녀는 이내 신통으로 장사꾼을 본국에 데려다 놓았다. 그런데 함께 다니던 다른 장사꾼이 그가 용궁으로 들어간 사실을 그의 가족들에게 말해주었기 때문에 그의 부모는 아들이 이미 죽으로 갔



삽화 · 강병호

장사꾼은 물었다.

“그대는 이렇게 장엄한 데서 포살을 받는가?”

“우리 용의 법에는 다섯 가지 일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섯 가지나 하면, 태어날 때 용이 되는 것이고, 잠을 잘 때 용이 되는 것이고, 음행을 할 때 용이 되는 것이고, 성을 낼 때 용이 되는 것이며, 하루의 반 동안 세 번을 가족과 같이 땅에 떨어지고 뜨거운 몸을 지지는 것입니다.”

장사꾼이 다시 물었다.

“그대는 어떤 것을 구하고자 하는가?”

“저는 인간 세상에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럼 나는 이미 사람 몸을 얻었으니, 무엇을 구해야 하겠소?”

“출가하십시오.”

로 여겼고 권속 종진들이 한 곳에 모여 슬피 울고 있었다. 때마침 가족을 놓아먹이던 이들과 나무를 하던 사람들이 뒤늦게 오는 그를 보고 달려가 그의 집에 알렸다.

“아무개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듣고 기뻐하면서 나가 집으로 그를 맞아들이고 잔치를 벌였다. 잔치를 벌일 적에 여덟 개의 병에 든 금을 가져다 부모님께 드리면서 말했다.

“이것은 용이 주는 것으로서 끊어 내면 다시 자라나서 오래도록 쓸 수 있는 금입니다.” (《마하승가율》 제33권에 나온다.)

동국대역경원 발행 <경률이상>에서 발행 재구성 구성=박재원 기자 wanhollo@hyunbul.com

##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⑥



### 소중한 인연들

**바라밀 일기**

오늘은 부산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 시간에 초대되어 방송을 하고 왔다. 현대불교신문에 '바라밀 일기'를 연재한 것이 인연이 되어 방송에까지 나가게 됐다. 신문에 연재를 시작할 때만 해도 쑥스럽고 걱정스러워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벌써 시작한 지가 1년이 다 되어가고 그로 인해 방송에 초대까지 받게 되니 더욱 쑥스러웠다. 연재를 시작할 때처럼 떨리는 마음으로 방송국을 찾았다.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왔던 지은이 아나운서가 담당 진행자여서 반가웠다.

진행자는 나의 근황과 바라밀 일기를 통해 소개되었던 나의 이야기들에 대해 물었다. 사실 나는 좋은 시절과 인연을 만나 신문에 연재도 하고 방송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부처님 말씀 따르며 나보다 더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나의 작은 신행과 수행이 너무 크게 만들어진 것 같아 부끄럽다.

부처님께 귀의한 불자로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텐데, 그것이 특별한 일도 아니어야 하는 것인데 방송을 하는 내내 쑥스러운 마음뿐이었다. 하지만 그

### 독자 위해 쓴 일기 '나' 바로보게 해 '나'를 드러내는 일 조심스럽고 어려워 추억이 '무상'을 증명

것이 무언가를 바라고 하는 일만 아니라면 불자들끼리 서로 서로의 신행담이나 수행담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스승이 되어주는 기회가 된다면 서로의 이야기를 알리는 것도 좋은 신행의 한 방편이라는 생각이다.

방송이 나간 후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그동안 '바라밀일기'를 애독해 주셨던 분들로부터 많은 전화를 받았다. 신문의 글을 쓸 때는 썼다가 고치기도 하고, 천천히 생각하면서 쓸 수 있는데, 방송은 즉석에서 말로 하게 되니 더욱 조심스러워 많이 떨렸다. 사람은 누군가가 나에게 사소한 일이라도 관심을 가져준다면 작은 행동과 말도 함부로 할 수 없게 되어 조심하게 된다. 그렇게 보면 올 해 동안은 내가 쓴 '바라밀 일기'가 독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글 쓰는 동안, 또 글을 쓰고 나서 나를 바로 볼 수 있게 해 준 것 같다. 또 다른 수행의 시간이었던 같다. 더욱 많은 생각을 하고, 더욱 조심스럽게 살 수 있었던 것 같다. 그야말로 나에게 '바라밀 일기'였던 것이다. 세상을 향해 '나'를 드러낸다는 것이 이토록 조심스럽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깨달았다.

이제 올 해도 저물어간다. 마지막 달력인 12월만이 쓸쓸히 남아 있다. 매년 이맘때면 누구나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게 된다. 저물어간다는 것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 같다. 특히나 나처럼 나이를 먹은 사람들은 저물어가는 인생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다. 진실한 삶으로 후회 없이 살고 다음 생을 맞고 싶다. 그래도 이만큼 열심히 살 수 있었던 것은 고암 스님, 일타 스님, 법정 스님, 지관 스님 등 많은 스승님들 덕분이란 생각이 다. 그의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스님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부모님은 나의 육신을 있게 한 은혜이지만, 불법의 인연으로 부처님의 법을 바로 알게 해 주신 스승님들 또한 소중한 은혜이다. 연말이다. 각자 차분하게 정리하는 시간과 희망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길 기원한다.

**추억은 무상의 증거**

동해남부선 기차선로가 바뀌면서 지금까지 기차를 타고 동해 바다의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며 여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12월 1일부터는 기존의 그 길(수영에서 송정 해수욕장까지)에서 볼 수 있었던 경치를 볼 수 없게 됐다. 그 기차를 타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유래 없는 인파였다. 나와 몇몇 도반들도 그 행렬에 끼기로 했고, 오늘 다녀왔다.

오래전, 새마을호가 생기기 전에는 타 보았던 무궁화호를 타고 가까운 울산으로 가게 되었다.

부산에서 1시간 40분 거리였는데, 우린 그 옛날 처녀시절을 떠올리며 수다를 떨었다. 삶은 계란을 준비해온 사람도 있었고, 딱소한 커피를 준비해온 사람도 있었고, 또 과일을 준비해온 사람도 있었다. 나도 준비해 간 떡과 녹차를 내놓았다. 즐거운 시간이었다. 추억이 있어 즐거운 시간이었다.

오랜만에 여행이 주는 즐거움을 만끽했다. 기차에서 내려 제일 먼저 고래박물관을 갔다. 학생들처럼 견학을 마친 뒤 점심을 먹고 태화강의 아름다운 산책길을 걸었다. 대숲이 웅장하게 펼쳐진 길가엔 겨울 갈대들이 차가운 바람 속에서 하얀 솜털을 날리며 서있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게 되어있다. 늘 변해가고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 아쉬워하고 추억하는 것이 결국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감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 늙어가는 일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했다.

겨울풍경을 카메라에 담았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드문드문 떠있었다. 어릴 적 보았던 그 맑은 하늘과 그 구름을 보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변해가지만 기억이라는 게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했다. 또한 기억이라는 게 있어 세상이 변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추억이라는 게 무상(無常)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돌아오는 길에도 아침처럼 다시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왔다. 오늘 만든 추억도 무상함의 증거로 남을 것을 생각하니 순간순간이 소중한 듯 소중하고 소중한 것이다.

부산 연꽃모임회장

# 탱화 청동불상 전문 [ 1,000불 / 3,000불 / 10,000불 ]



## 四代傳統

계통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호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군 → 원만당 석운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 빙의 퇴마사례 생생하게 전하고 그 해결방법 밝혀 !!!

빙의에 걸리면 정신질환인 우울, 불안, 공포증, 또는 조울증, 정신분열 등 심인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괴로워한다. 심지어 요즘엔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흔해졌다. 이로 인해 정신질환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희망이 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제행 지음 / 신국판 / 319페이지 / 13,000원

이 책은 심인성질환의 치유와 퇴마의 권위자인 제행스님이 그간 치유했던 사례들을 담은 책이다. ※ 입금계좌 : 농협 552-01-047918 대한불교비공정사

## 저자 직접 상담. 개인지도

1. 최면요법, 빙의퇴마 과정 (우울, 불안, 공포증 치유 및 전생과 미래를 본다)
2. 빙의 퇴마 전문가 과정
3. 기문둔감, 성명학 과정
4. 2명이상 지방출장 가능

예약상담 사주, 작명, 빙의퇴마, 심리상담  
빙의(신병) 출장 퇴마합니다.

전화 011-772-4606

서울지하철 2호선 방배역 3번출구, 7호선 내방역 3번출구

# 보시

꿈과 노력이 있으면 성취할 수 있다지만 방법을 알고 있다면 더더욱 쉽게 성취할 수 있겠지요.

부처님의 진리를 담은 전신법해 삶의 방식과 지혜로 부자되는 방법 참회하고 노력하여 부자되는 방법 언행일치로 참 행복 얻는 방법



4가지 책을 원하시면 전남 곡성군 옥곡면 설옥리 설산 사자봉 사자암 송암스님 010-8224-1688 전화문의하세요.

책 발송을 원하시면 1만원 입금하시고  
농협 : 351-0515-8213-93 예금주: 사자암  
책 받으실 법우님 주소를 문자 주세요.